

## 退溪의 天人觀\*\*

웨이밍 투 (Wei-ming Tu)\*

天命圖說에서 퇴계는 天命의 理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 사실은 朱熹가 太極은 표면적으로는 이원적 분류이지만, 실제로는 존재의 모든 양상을 구성하고 있는 비창조적, 무형의, 비가시적인 氣로서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는 설을 퇴계가 엄격히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존재론적으로 理가 氣에 선행한다는 것과 실존주의적으로 그들은 분리될 수 없고 또 혼합될 수도 없다(不離不雜)는 朱子の 주장이 필연적으로 이원론으로 귀결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주자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인식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주희가 태극을 ‘但理’로 이해했다는 이유로 그는 현실주의자 또는 자연주의자라는 주장에 대해, 그리고 맹자나 북송의 대가들, 즉 周敦頤와 張載, 그리고 程灝와 같은 사람들의 위대한 전통에 있어서 그는 진정한 도덕적 이상주의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느낀다. 만약 주자의 理를 비창조적인 것으로 성격짓는 일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주희의 추종자로 당연시되고 있는 퇴계는, 理의 존재론적 상대와 관련하여 더욱 흥미를 돋우는 논쟁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비록 퇴계가 天이 곧 理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理를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

\* 하버드대학 교수

\*\* 원제 : T'oegye's Anthropocosmic Vision : An Interpretation

이 논문은 1984년 독일 Hamburg 대학에서 열린 제7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임.

실제로 인간과 하늘의 不可分性, 그리고 모든 사물의 단일성은 理의 내부 구조에서 예견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내부구조는 확실성이라는 그 자체의 力本說에 따라 구분이 된다. 理의 四德이 우주변형 과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묘사함에 있어서 퇴계가 ‘窩’라는 말을 어학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연습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理 그 자체는 우주의 창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게 할수도 있다. 그러나 퇴계는, ‘二五妙合之源’의 관점에서 四德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내용인 “天命을 性이라 한다(天命之謂性)”(중심성과 일반성, 中庸의 첫 구절)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장하였다.

太極圖에서 周敦頤가 이해하였던 것 처럼 퇴계가 周易의 전통에 따라 공자의 우주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시도했던 노력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해석적 논쟁을 제기한다. (1) 퇴계는 周敦頤에 대해 충실한가, 그리고 만약 周敦頤가 中庸 및 周易에 나타난 맹자의 우주론적 통찰력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면, 그는 맹자의 계보에 대해 충실한가? (2) 자기 자신의 우주관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쟁점은 상호 연관되어있다. 만약 첫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어떠한 것인지는 상당히 분명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주희처럼 퇴계도 부지중에 태극에 대한 맹자-周敦頤의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그의 우주관의 성격에 대한 질문은 매우 광범위해진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은 마음 속에 두는 반면 두 번째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편이 전술상 현명할 것 같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희가 맹자-周敦頤 계보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논의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다. 그런데 이것은 태극에 대한 주자의 이해를 ‘但理’로 판단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퇴계는 명확히 공자의 우주론에 대한 주희의 해석과 행동을 같이 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태극을 ‘但理’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도 않았고, 理를 단순히 존재의 근본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앞서 기록한 ‘四德’은 우주 창조성의 네 가지 양식을 형상화하는 것인

데, 이것은 天理의 네 가지 특성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理가 우주의 근원·변화·발전 및 완성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그 자체가 동적이고 창조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天命의 의미를 理의 내적 구조라는 말로 표현한 퇴계의 설명으로써 生生의 특징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四德’의 토대가 되는 실체는 성실성이라고 한 그의 묘사는 특별히 주목할 만 하다. 이것은 ‘성실성이 없이는 아무 것도 존재치 않는다’(不誠無物)는 중용의 사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二五妙合之源’는 天을 일컫는 말이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은 天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天의 창조적 산물이다. 天의 일원적 理와 사물의 고유한 理 사이의 관계는 구분이 문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구분되지 않은 전체로서의 理는 결코 분화하지 않는다. 각 사물의 고유한 이치는 天의 일원적 理의 왜곡된 형태도 아니고 부분적 현실화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체로서의 天理의 구체화 내지는 표현이다.

퇴계는 理와 性 사이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理는 하나지만 그것의 특수화는 다양하다(理一分殊)는 신유교적 관점으로 이해했다. 차별성보다는 오히려 상관관계 및 동족관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자로서의 하늘과 피조물로서의 사물 사이의 커다란 괴리와 같은 생각은 여기에 전혀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것은 거부된 가능성같은 것조차도 아니다. 퇴계의 우주론적 사고에 대한 주된 논점은 하늘의 창조성이 펼쳐고 있는 자연성을 감지하는 일이다. 하늘은 ex nihilo를 창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변형 과정상의 외부적 의지가 아니다. 天의 창조성은 만물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도도한 흐름’(大流)의 한 구성 요소로서 전개된다. 사물의 성질은, 하나의 달빛을 근원으로 하여 수많은 강물이 비추어 내는 수많은 달빛처럼, 天의 理라는 동일한 실체를 공유한다. 사물의 성질은, 특히 인간의 성품(더 상세하게 다루어질 요소)은 天에 의해 수동적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天에 의해 창조성을 가지도록 명령 받았으며 그래서 그것은 우주의 변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퇴계의 사상에서 天命은 天이 모든 존재 양상을 天의 창조성의 化身으로서 그래서 결국 창조자로서 존재토록 명령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이러한 동적이고 진화적인 조망은 理가 氣와 지속적이고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理를 장수에 그리고 氣를 병사에 비유(理爲氣之師 氣爲理之卒)한 퇴계의 묘사는 우주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공동의 모험에 처해 있는 理와 氣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사물 가운데서 理가 그 자체를 인식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氣가 계속적으로 혼합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 특히 각기 음양이라는 특별한 양상을 지닌 五行은 다음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사물에 생명을 부여한다. 나무(木, 더 정확하게는 나무의 기)는 시작하고, 불(火)은 지속하고, 금속(金)은 공고히 하고, 물(水)은 보존하며, 흙(土)은 지탱한다. 부분적으로는 계절의 변화를 모형화하기도 하는 이러한 공동의 운동은 곧 천의 운행 방식이다. 그러나 관습화된 행위의 개념과는 동떨어진 순환적 변환이라는 사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진 존재의 출현과 마찬가지로 진화적 발전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五行의 순서에 의하면 생명의 시작을 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퇴계는 초기 단계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은 물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퇴계의 견해에 있어서 나무나 물이 생명체의 출현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은 진화적 척도에 있어서의 인류의 출현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 퇴계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 것은 인간이 된다는 사실의 유일성에 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 인류와 다른 동물왕국의 구성원, 결국 인간과 모든 다른 존재 형태 간의 구별에 대한 정통적 유교의 문제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퇴계의 해석적 입장은 주희의 우주론적 가설로부터 직접 도출해낸 제안 정도로 보인다. 우주의 변형에 있어서 인류를 다른 사물과 구별되게 하는 과정은 근본적으로 氣라고 하는 위대한 드라마에 의해서

생성된다. 순수함의 정도, 세련됨의 수준, 時空的 외형, 그리고 그 외 다른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氣 구조의 복잡성은 수많은 존재의 다양성을 야기하는 수단이 된다. 반대로 일원적인 理는 상대에게 있는 것들은 무의미하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理의 자율적이고 비의존적이며 독자적인 존재론적 상태는 그것을 인간성에 있어서나 개, 나무 또는 돌에 있어서나 모두 똑같이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氣의 구조에 있어서의 복잡성이 사실은 陰陽의 相生相克이라는 간단한 이원적 체계에서 도출되었음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陰陽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동시에 상호 모순적이며, 둘 사이의 흡인과 반발이라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조합과 재조합의 끊임없는 가능성을 생성한다. 퇴계가 관찰한 바와 같이, 주어진 음의 양태에는 항상 양이 존재하며 주어진 양의 양태에는 항상 음이 존재한다. 더욱이 음의 양태로 주어진 것에서의 양에는 음이 또다시 그런 식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조합과 재조합의 과정이 무한히 계속됨에 따라 모든 종류의 특이성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사실 五行은 이 우주의 변형에 있어서 氣의 다섯 가지 기본적 相이다. 理의 일원성에도 불구하고 사물은 氣가 취하는 다양한 형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해할 수 있듯이, 理의 절대적 평등성에도 불구하고 사물은 계급적 구조를 이룬다.

계급 피라미드의 밑 부분은 나무나 돌과 같은 무생물이 차지한다. 그것들의 존재를 형성하는 氣는 혼란스럽고 탁하며 거칠다. 그것들은 순도가 낮고 세련미가 떨어진다. 이에 대한 퇴계와 주희의 보다 예시적인 표현을 빌리면, 그것들은 비록 理의 성질을 부여받았지만 그 성질은 완전히 차단(塞)되어 있고 그 빛은 자신을 통과하여 반짝이지 못한다. 피라미드의 중간 부분에서는 새와 짐승을 발견한다. 그것들의 氣는 부분적으로 차단된 특징을 지니는데, 이유는 理가 자신의 氣를 통과하여 반짝일 수 있는 부분적 방법을 가지기 때문이다. 피라미드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섬세하며 가장 정교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가장 눈부시고 가장 투명(明, 通)한 氣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지각력(예민하고 감각있는)이 뛰어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류는 고정된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유동적이다. 실제로, 바닥에서 정상으로의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정상에서 바닥으로의 추락은 가능하다. 즉 가장 뛰어난 지각력으로부터 나무나 돌과 같이 무감각하게 될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새나 나무처럼 행동할 정도로 자신의 밝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氣가 전체이거나 부분이거나간에 차단된 존재와 우리 인간과의 사이에는 자질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비록 인간이 밝은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조명 능력을 결코 완전히 빼앗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만이 완전히 자신의 성품에 있는 고유의 理를 자각할 수 있는 타고난 지성을 부여받았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자각을 통하여 천지의 변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하늘 및 땅과 함께 삼위일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직 인간만이 사실상의 창조자이다. 다른 존재들은 자신의 성품에 있어서 天理의 化身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의식적 선택에 의해 자신의 삶의 운명을 형상화 할 수 없는 형식상의 창조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인간이 된다는 사실의 특성은 의식적 선택에 의한 궁극적 자아 변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선입견에 따르면 인간은 하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지만, 理는 그러해서 질적 변화도 함께 수반하는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형태는 가장 탁월한 氣의 결정체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사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존재하도록 한 수단이 되는 음양의 힘과 오행의 경이로운 혼합에 대해서 특별히 빛을 지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존재 사슬에서의 인간의 우월한 지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은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다른 존재(개, 나무, 돌)는 자신들의 성품과 동일한 理

를 가진다. 물론 우주의 어떤 다른 존재와도 달리 인간은 하늘과 땅의 공동 창조자로서 우주의 변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내적 변형이 필수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太極의 자연스런 흐름의 수호자 역할을 생각하기 전에, 우주의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지각력이 뛰어난 존재로서 우리의 완전한 잠재력에 의해 살아갈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완전한 잠재력이 실현될 굳건한 토대는 理도 아니고 氣도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구성하는 두 가지의 섬세하고 미묘한 조화이다. (유교 사상에서 마음은 지각과 양심 둘 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종 지성과 감성으로 표시된다.) 퇴계는 마음을 理와 氣가 거주하는 장소로 개념화했다. 그는 또한 氣는 理가 기거하는 장소임에 주목했다. 그래서 우주의 변형 과정에 있어서 理는 氣의 하나의 주어진 형태로서 자기 자신을 명시한다. 가장 탁월한 氣로서의 인간의 형태는 마음의 구체화라는 추가된 차원을 가진다. 달리 표현하자면, 마음은 인간의 형태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교한 氣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 퇴계는 마음은 理로 인하여 우둔하고 氣로 인하여 총명(감각적이고, 민감하며 영적)하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토론은 퇴계가 인간의 상을 순전히 자연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퇴계는, 도덕성은 성품을 거스르는 의지의 행위의 결과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질서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당연시했다는 데 문제의 진실이 있다. 다섯 가지 상존하는 도덕적 가치(五常) 즉 仁, 義, 禮, 智, 性은 인간성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이다. 실제로 이것들은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오행과도 또한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마음은 理와 氣의 정교하고도 미묘한 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오하고 광대한 변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은 타성적이고 자기기만적이며 부패하기 쉬운 경향도 있다.

마음의 이러한 불확정적 성질은 인간 감성의 이중적 구조로 퇴계에

의해 묘사된다. 편의를 위하여, 내재된 두 가지 성향은 理를 중심으로 한 느낌과 氣에 의해 야기되는 감정으로 설명될 것이다. 앞서 밝힌 맹자의 오상(사단에 성을 합한 것) 중의 사단과 같은 마음에 타고난 理의 자연스런 표현인 느낌은, 그것이 우리가 진정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제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퇴계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배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한편 즐거움, 성냄, 슬픔, 기쁨, 사랑, 증오 그리고 욕망과 같은 감정은 심리적으로 불가피한 표현이다. 우리가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적절하게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느낌은 필연적으로 선한 것이며 감정은 악한 것이 되기 쉽다는 식의 명확한 구분으로 말미암아 퇴계는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그가 고안해 낸 이 방법은 대를 이어가며 한국 유교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소위 四七之辯에 기여케 했다. 비록 퇴계가 느낌은 감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지만(예를 들어 인간의 감성을 정의하는 측은한 느낌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히 조절되어야 할 분노의 감정 사이에 있어서의 극명한 대조), 그는 감정도 느낌과 마찬가지로 자연히 인간적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다. 사실 그는 일곱 가지 감정(七情)도 오행에 근거하여 樂과 愛(木), 喜(火), 怒와 惡(金), 哀(水), 欲(土)이라는 식으로 이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즉, 우주론적으로 理와 氣에 있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은 성품으로부터 생겨나며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늘과 함께 일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인류 우주론적 관점으로 볼 때, 마음은 모든 존재에 의해 공유되는 太極과 인간을 정의하는 주어진 형태의 氣를 묶어준다. 理를 구체화(앞서 언급한 命)함에 있어, 마음은 자기 조명을 통하여 천명을 실현하는 훌륭한 방법으로서 인생 향로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음은 자기 변형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氣(군사)의 에

너지를 동원해야 한다. 마음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였을 때, 즉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떠한 의식적인 노력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나자마자 임무는 시작된다. 너무 일찍 통제해 버리지 않고 마음의 방향을 예기하는 행위는 곧 자기 수양의 기술이다. 퇴계는 마음의 미묘한 초기 생성에 대한 周敦頤의 예리한 분석을 추종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기 수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특히 그는 마음의 作爲性에 관심의 초점을 모은다. 마음은 인간의 성품(理)과 인간의 감정(氣)을 조합하고 명령한다. 따라서 마음의 미묘한 초기 생성은, 말하자면 그것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직 실제로 행해지지 않은 상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인식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인간 사회에는 매우 우수한 氣를 월등히 부여받아, 하늘 그 자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적 변형처럼, 별다른 노력없이 자기 자신을 변형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혼란스럽고 혼탁하며 매우 거친 氣를 부여받아 모든 개인적 발전의 희망을 포기해 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두 극단적인 경우는 아주 드물다. 공자와 그의 중요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들 대다수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러한 중간에 있는 존재로서 하늘의 理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갖가지 불균형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퇴계는 관찰하고 있다.

즉 우리들 중 일부는 지식에는 강한 반면 행동에는 약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행동에는 강하나 지식에는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앎과 행함에 관한 강점과 약점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도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는 우리는 적절히 자기 인식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스승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공자가 분명히 예시하듯이,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천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식적인 노력이다. 따라서 퇴계가 인간의 지성적 차이를 현실적으로 수용은 했지만 그는 결코 운명론자로 흐르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기회의 균등은, 추상적 생각으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실제로

향상될 수 있는 잠재 능력의 측면에서, 인간 세상의 확실한 특징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지적 능력이 적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완성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학을 공부하는 길은 天理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신의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주장 할 수 있었다. 우리의 천부적 자질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자기 수양에 대한 주희의 균형적 접근 사상 자체에 충실하며, 퇴계는 다음의 이중적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마음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때는 마음을 보존하고 기를 것이며, 마음이 이미 발현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마음의 본질은 보존하고 마음의 기능은 교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퇴계의 신유학 용어로, 하늘에 의해 다스려지며 四德이 갖추어져 있는 마음은 육체의 주인 역할을 한다. 마음이 외부 사물에 영향을 받을 때는 먼저 규범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고민하는 형태로 반응을 나타낸다. 그 후에 의사가 분명해지고 감정이 움직이게 된다. 그런 다음에는, 예의 바른 행동에 대해 이미 확립된 공적 비판 기준과 마찬가지로 정당성에 대한 내부적 기준에 따라, 그 마음이 적절히 대응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교정을 위한 노력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마음이 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이 교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럴 때는 중대한 시험을 하는 대신 마음을 잘 보존하고 길러서 그 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의 본질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마음에 있는 고유의 理가 완전히 빠져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알아낼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전혀없다. 또한 마음이 발현된 후 감정의 의사가 막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시점을 감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퇴계는 이러한 두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심리 상태로 敬을 추천한다. 敬은 그 자체의 본질적 목적으로서 재능과 강인함이 용기를 내도록 하여 마음을 추스린다. 이렇게 자각이 배양된 상태에서,

마음은 그 내부구조의 심오한 이해를 구가할 수 있으며 자신의 理와 접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 결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확신함으로써 마음의 본질을 확립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敬은 마음을 항상 경계하도록 한다. 敬은 감정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마음을 감정의 상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마음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탈선의 가능성에 앞서 자신의 기능을 수정할 수 있다.

敬을 자기 수양 철학의 중심에 두기 위한 주된 노력의 일환으로 퇴계는 敬을 성인적 배움의 시작이자 마지막(聖學之始終)이라 묘사하였다. 그는 마음이 육신의 주인인 것과 똑같이 敬이 곧 마음의 주인이라는 성격을 부여한 송대 유교 사상가들의 설명을 열심히 인용했다. 그렇게 이해된 敬은 심리학과 윤리학의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敬은 인간성 본래의 天理를 깨닫는 데 있어 마음이 그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심리학적 기교나 윤리학적 규율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敬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敬은 우리가 완전한 의미의 인간이 되기 위해 학습하는 총체적 상황을 제공해준다. 敬은 자기 수양의 한 단계로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敬은 우리의 도덕적 교육의 차원도 아니다. 敬은 우리 존재의 모든 양상에서 두드러진 특성을 이룬다. 보다 심오한 의미로 敬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해 준다. 인간은 경건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단순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天命이 모든 사물 속에 존재한다는 인류 우주론적 현실의 증인으로서 궁극적 자기 개선 능력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정 우 락 譯)